

순창, 기초행정구역 DB구축 추진

최영일 군수, LX공사 전북지역본부 찾아 소통 협력 강화

2024년도 감진년 새해를 맞아 최근 최영일 순창군수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를 찾아 소통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순창군이 올해 추진할 예정인 '순창군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사업'과 관련해 양 측간의 업무협조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사업

은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행정리·통·반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간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도내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통·반, 자연마을의 131개 법정리 경계를 바탕으로 317개 행정리 경계를

지적도 기반의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행정구역 개편이나 통·반 불일치 등 기존 기초권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LX공사 전북지역본부는 행정리별 기초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행정구역 경계안을 마련한 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기초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행정구역 복지, 소방, 치안, 학군, 소방,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응용이 가능하며, 주소 정보 기반의 공간정보 구축으로 4차 산업 육성과 정책 지원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도와 연계한 공간정보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을 새로운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창출로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문성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평한 업무 분담 및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불명확하게 구축된 기초행정구역 데이터를 정비해 군민을 위한 종합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를 찾아 소통 협력 강화에 나섰다.

남원시, 곤충산업 분야 5개 보조사업 지원

올해 8억7000만원의 사업비 투입

남원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이자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인 곤충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올해 8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5개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신청받으며, 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

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사업별 지침에 따라 세부 신청대상은 별도 확인한다.

곤충분야 주요 사업은 스마트 곤충 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곤충 생산안정화 지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등이 곤충사육시설현대화(옹자지원) 신청기한은 2월 16일이다.

시는 접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오는 2월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축산과 곤충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육 시설 개선과 기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곤충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곤충농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2023산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금 지급

임실군이 지난 2일 2023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금 7억5천만원을 관내 2,433농가에 지급했다.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금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과 농협 자체 매입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영농 의욕 증진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 가격은 70,120원이며, 농협 자체 수매 신동진 1등급 매입 가격은 64,000원으로, 농협이나 임도정공장에 벼를 판매

한 농가에 차액의 일부인 40kg 가마당 2,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차액지원 사업이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우리군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구축 운영

남원시보건소, 9일부터 12일까지 의료공백 최소화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무탈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의료원은(620-1114)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보건기관, 병·의원, 약국 57개소를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 운영한다.

비상 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 남원시청 홈페이지(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정보 포함)와 보건소

(620-7918)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App)을 통해서도 비상진료기관, 약국 운영 현황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까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방문이 어렵거나 가벼운 증상일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지정된 24시간 운영 편의점(43개소)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연휴 기간에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해 시민의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료가 가능한 비상진료기관과 약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지난 5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수시장 및 임실시장에서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200여명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임실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캠페인 진행

임실군이 지난 5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수시장 및 임실시장에서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200여명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 이용 홍보와 임실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통하여 경제살리기 공감대 형성 및 전 군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명절을 맞아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혜택을 유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수용품 준비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시장이용객들과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또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며 "설 연휴에는 임실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시장에서 고품질 농산물과 제수용품을 알뜰하게 구매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설 연휴 광한루원 테마파크 무료 개방

남원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광한루원 및 남원추향테마파크를 무료로 개방하고 광장 및 서문 주차장도 무료화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설 연휴에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선조들의 세시풍속 '놀이·있다1'의 콘텐츠를 운영한다. 향이·풍이와 함께하는 민속놀이 체험, 한복 밭, 솟츠 썰렁지, 전통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광한루원, 화인당, 예춘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광한루원 연못에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100여마리가 동지를 들고 있고 토종 잉어가 불거리를 제공한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환상연가' 촬영 배경 장소로 관광객들이 배경이 너무 예뻐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광한루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색다른 재미와 가족·연인 간의 멋진 추억을 많이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 설 명절 기간 무료 개방

순창군이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강천산군립공원과 용골산하늘길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강천산을 찾은 모든 방문객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강천산군립공원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명소로, 이번 무료 개방을 통해 전국각지의 많은 이들이 그 특별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화희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